

위기의 東大 '선각자' 에게 해답 묻다

백성욱 총장... 無에서 외·내형 기틀 다져 동대 발전초석 마련 김법린 박사... 역경원 모태 대학선원·외국어 교육원 설립

故 백성욱 총장이 동국대에 이룬 업적은 크다. 석조건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명진관을 비롯해 대학본부와 구 중앙도서관(현 만해관) 등을 세우며 외형적 기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연극학과 설립 등 시대를 앞서간 해인으로 오늘날 동국대의 초석을 마련했다.

유람 유희시설 '귀곡해 불교계를 위해 일해 달라'는 종단의 부름에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했던 김법린 박사 역시 외국어 교육원·대학박물관·불교문화연구원을 신설하고 인도철학회를 개설하는 등 동국대 흥부와 불교계 발전에 일획을 그은 인물이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11월 22일 동국대에서 '근대불교 선각에 대한 회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교 100주년을 넘긴 종합학교로, 민족사학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지만 신장이 사건과 로스를 탈락 등으로 동국대 위상은 추락했다. 오영교 총장이 학사 운영에의 CS개념 도입 등으로 대학 최초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이라는 새바람을 몰고 온 이면에는 그칠 줄 모르는 학내 구성원들의 총장 불신임 외침이 있다.

백성욱·김법린 박사의 회고와 오늘날 동국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국대 발전 초석 백성욱 박사

정종 명예교수(동국대)는 '백성욱의 불교 사상과 활동'을 발표했다.



93세 망백(望百)의 나이에도 원고 없이 서서 1시간 넘게 씌어 없이 이어진 정 명예교수의 발표는 "좋은 스승을 만났을 행복의 조건이

요,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백성욱 박사(1897~1981·사진)에게 붙는 칭호는 불교학자, 독립운동가, 승려 등 다양하다. 백 박사는 단 시일 안에 흡사 옛 고승 대덕들이 대가림을 창건하듯 목석산(現 남산) 기슭에 대담하게 석조건물 명진관과 대학본부 등을 세웠다. 동국대 부지 7~8만여 평이 백성욱 박사에 의해 조성됐다. 백성욱 박사는 한국 불교 흥부와 근대화·대중화를 위해 대동국 건설에 집념을 보인 선각자였다.

백 박사가 총장취임 후 일차적으로 착수했던 것은 관직집에 지나지 않았던 개인 교수실 마련 사업이었다. 대학이란 공공적으로 교수양성기관으로 강의실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실례에 따른 지론이었다. 건물과 시설 위주가 아닌 도서관 중심, 교수와 연구실 중심의 지론은 당대 최고 영문학자 최재호 교수를 초빙해 대학원장에 임명하는 파격적 인사로 이어졌다.

당시 친일파로 지탄받던 최 교수를 학내 구성원 반발을 무릅쓰며 등용한 이유에 대해 백성욱 총장은 "동국대 교수들에게 평생을 두고 시종일관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의 산 모델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백 박사는 無(無)에서 동국대를 일궈냈으며, 이 배경에는 이승만 노선의 지지 기반이 있어 가능했다.

동국대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목척산을 깎아 먹는다는 비난이 잇달았을 때다. 코리아하우스(現 한국의 집)를 찾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욱 박사가 하는 대학이 어디냐? 들려서 가자"해 동국대를 들렀다. 부재중이었던 백 박사는 다음날 경무대로 이 대통령을 찾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산을

깎아먹는다가에 계획 없던 걸음을 했다"고 말하자, 백성욱 박사는 "이제 그만 깎아먹겠다"고 답했다. 국유지로 경무대와 직선거리였던 목척산 중턱에 대학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을 알려준 일하다.

백 박사는 한민족은 바다를 갈아먹고 살아야한다며 남해에 해양연구소를 만들 구상을 했고, 연극학과를 두어 대중들에게 사람다운 매너를 연극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을 만큼 시대에 앞선 비전을 갖고 있었다.

백성욱 박사의 모든 행동은 영원무궁한 불자들의 보급자와 도량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5·16 혁명으로 인해 총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백 박사의 동국대 개혁은 멈춘 적이 없었다.

회고를 마친 정종 명예교수는 "불교 없는 동국대도, 동국대 없는 한국불교계도 생각할 수 없기에 백성욱의 위치는 한국불교의 중흥조로서 원효적·보조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근대불교학 호시 김법린 박사

동국대는 운수가 좋지 않았다. 김법린 박사(사진)가 백 총장의 뒤를 이어 총장에 올랐으나 단명으로 끝나 학교가 답보상태에 이르렀다. 김 박사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보니 백 박사가 불과 7~8년 동안 이 많은 해냈다는 것이 놀랍고, 나로서는 족달불급(足脫不及,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밖에서 보기도 전엔 다르다는 것을 알았노라"라고 말했다.



김법린(1899~1964) 박사는 프

랑스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으로 독립운동가였다. 총무원장으로 해방 직후 불교교단을 견인했고, 문교부장관 및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법린 박사에 대해서는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김법린과 한국근대불교학'을, 이봉춘 교수(동국대)가 '김법린의 불교사상과 활동'을, 조준희 소장(국학연구원)이 '김법린의 유럽에서의 민족운동'을 발표했다.

김법린 박사는 전통불교에 기반을 둔 승려였으나, 해외유학을 통해 신학문을 공부한 대표적 지식인이었다. 김 박사는 근대불교학의 문헌학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범어 불전을 국내에 소개한 인물이다.

김법린 박사는 1931년 1월 발행된 <불교> 제79호에서 '학계의 신 동향과 정확한 전거를 참고할 수 없는 교수의 강의는 전통에 빠지거나 독단화하기 쉽다. 학부로서 학문적 사명을 다하게 함에는 도서 완비가 기초적 조건이다'라고 적었다. 중앙도서관 하나 없던 불교계를 지적한 그는 "교학적으로 빈약하니 교문이 부진한 것은 당연하다"며 절망했다.

신불교학의 건설이 조선불교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했던 김법린 박사는 이후에도 일본 등에 유학해 신학문을 익혔다. 1945년 8월 19일 조계종 종편을 인수한 김 박사는 조선불교로 지정하도록 하고, 총본산 태고사와 31본사를 해산시키는 등 개혁 후 총무원장에 올랐다.

김법린 박사는 비구승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대의 역행이라 경계하며, 민중본위적 불교운동을 주장한 선각자였다.

다술사 강연 등에서 서양철학 등을 강의하며 인재발사에 몰두했던 김 박사는 동국대 총장 취임 후 여러 업적을 이루며 동국대 중



한국불교학회에서 '백성욱의 불교 사상과 활동'을 발표한 정종 명예교수는 93세 나이에도 원고 없이 서서 발표했다.

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청년들의 외국어 능력을 강조해 외국어교육원을 세웠고, 불교의 생활화와 자기완성의 수도장으로서 대학선원을 열었다. 대학선원은 역경원 설립의 모태가 됐다. 불교문화연구원, 박물관 설립에도 앞장선 김법린 박사는 불교학 연구를 위한 기반적 학과로서 인도철학과를 개설했다.

이봉춘 교수는 "김법린 박사는 만해 한용운의 제자로 근대와 혁신의 새 불교사상을 주창한 인물"이라며 "민중본위적 불교사상과 현실참여적 불교사상의 형태로 구체화됐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에는 △보광 스님(동국대)의 '허응당 보우의 <권념요록> 연구' △여현 스님(동국대)의 '초기선종사에 있어서의 <능가경> 일고할' △김성장 교수(원광대)의 '일분호흡을 기본으로, 하는 단전수 선의 원리방법 체득 등 10여 편의 논문이 자유 주제로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보조사상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

12월 6일 보조사상연구원 개원 20돌 맞아

돈집논쟁을 촉발시키며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의 계기를 이끌어냈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이하 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개원 이후 연구원이 개최한 정기 학술세미나만 20회, 월례발표회는 87회에 달한다. 연구원은 신진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논문 마다 2인씩 논평자를 두는 파격적인 학술대회 운영으로 불교학자들을 담금질해왔다. 인경 스님(동방불교대학원대학), 임승택 교수(경북대) 등 국내 보조 연구자치고 연구원을 거쳐가지 않은 학자가 드물다.

연구원은 12월 6일 10시부터 서울 법원사 대웅보전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조사상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보조사상연구원

발기인들이 직접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끈다.

△권기중 명예교수(동국대)의 '지불사상의 재조명' △강건기 명예교수(전북대)의 '인간학으로서의 보조사상' △김희성 명예교수(서강대)의 '비교사상적 관점에서 본 지불의 사상' △최병현 명예교수(서울대)의 '지불 이후의 수선사' △법산 스님(동국대)의 '조계종, 송광사 그리고 보조사상'이 발표된다.

법산 스님은 "초창기 보조선 중심의 한국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2~3년 전부터 인도철학 외 불교학 일반을 다룬 것을, 20주년을 정점으로 학제간 연구 등 활동범위를 넓혀 갔다"고 말했다. 017-358-4278

조동섭 기자

"20년대 불교 동화는 '소년문화운동'"

박상란 연구원 한국어문학연구학회서 주장

구전설화를 1920년대 불교계 등이 현실에 맞게 재화한 불교잡지 동화는 아동포교를 초월한 소년문화운동으로 의의를 갖는다는 견해가 발표됐다.

박상란 연구원(동국대 한국문학연구원)은 한국어문학연구학회(회장 김무병)가 11월 22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근대 불교잡지 동화의

형성과 계몽성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불교잡지 동화를 <불교> 제28~36호(1926~1927년 발행)에 걸쳐 '소년란'에 수록된 동화로 규정하고, 구전설화가 근대 불교잡지 동화로 재구성되는 변이 양상과 계몽성 등을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인도의 사유와 논쟁' 추계학술대회

인도철학회 12월 5일

인도철학회(회장 법산) 추계학술대회가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인도의 사유와 논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이거룡 교수(서울

불교대학원대)가 '상카라의 상키아 비판'을, 강형철(동국대)씨가 '직접 지각을 둘러싼 상키아 제 논사의 논쟁' 등 주제발표와 백도수 연구교수(금강대)가 '은·처·계의 제법 분별에 대한 연구' 등을 발표한다. 017-358-4278

조동섭 기자

'명상과 심리치료' 한국명상치료학회 12월 6일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명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제4차 정기학술발표회를 개

최한다.

김말환 박사(동국대)가 'MBSR과 연계된 명상의 비교고찰',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이 '유가행파의 영상관법과 인지치료의 심상작업', 유현자(동국대 박사과정)씨가 '태교에서의 명상과 미술치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02)2236-5306

조동섭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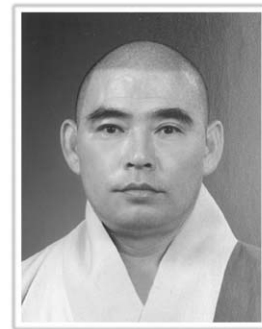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인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약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ANGSA24.ORG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